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CNBC: 3월 미 농가 일자리 17만 8천 개로 증가
- WSJ: JP모건 CEO “이란 전쟁으로 높은 물가, 금리 상승” 경고
- CNBC: “미 신규 대학 졸업생들, 높은 실업률 겪어”

[미국 금융]
- YahooFinance: 비트코인 7만 불 돌파…중동 전쟁 휴전 가능성에

[중동 위기]
- Bloomberg: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 미 동맹국들, 휴전 막판 협상 추진

[오일]
- CNBC: 휴전 논의 중인 상황에 오일가 하락

[무역 전쟁]
- YahooFinance: 트럼프 행정부, 광범위하게 관세 환급해 줄 듯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 5주째 상승…30년은 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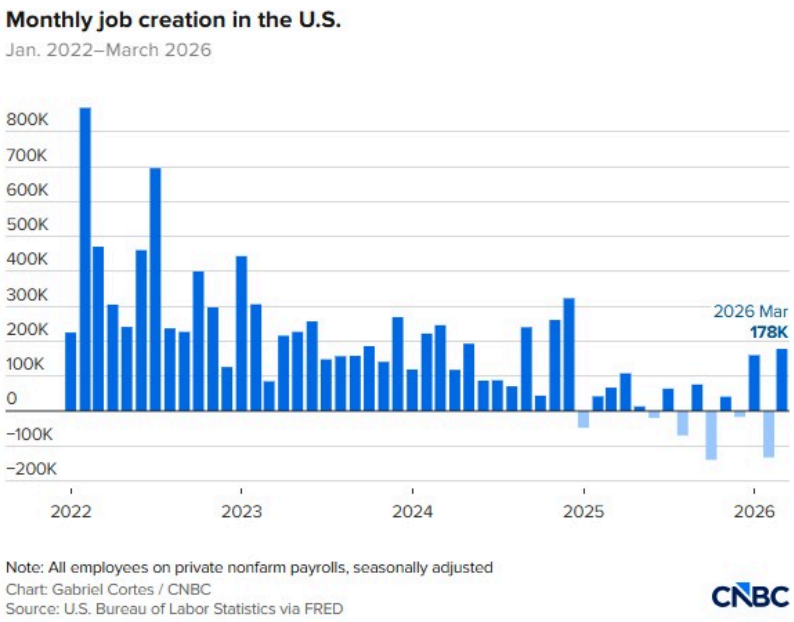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아마존, 온라인 물품에3.5% 연료추가 요금 부과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CNBC: U.S. payrolls rose by 178,000 in March, more than expected; unemployment at 4.3%
3월 미 농가 일자리 17만 8천 개로 증가

- 2월 미 일자리 13만 3천 개 증가에 비해 3월의 증가 숫자는 17만 8천개 더 상승했다. 다운존스의 컨센서스의 예상치 5만 7천 개보다 훨씬 높았다.
- 실업률도 4.3%로 떨어졌다. 임금 상승은 예상보다 낮았는데 2월에 비해 시간당 0.2% 상승해 머물렀고 1년 전에 비해 3.5% 인상됐다. 연간 임금 상승률은 지난 2021년 5월 이래 가장 낮았다.
- 일자리가 가장 늘어난 헬스케어의 경우 7만 6천 개가 늘어났다.



기사

WSJ: Jamie Dimon Warns of Higher Inflation, Interest Rates From Iran War
JP모건 CEO “이란 전쟁으로 높은 물가, 금리 상승” 경고

- JP모건의 CEO인 Jamie Dimon은 이란 전쟁이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그는 연례 주주 서한에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유가와 원자재 가격 충격이 더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과 결국 더 높은 금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그는 그런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유가 급등이 대규모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했지만, 오늘날 미국은 그러한 유형의 충격에 덜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그는 사모신용(private credit)의 대출 심사 기준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사모신용 펀드가 개인 투자자 유치를 확대하는 데에는 “더 큰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사

CNBC: New college graduates face a tough job market. Here’s why unemployment hits them harder
“미 신규 대학 졸업생들, 높은 실업률 겪어”

- 블랙록의 CEO인 Larry Fink은 3월 회사서밋에서 인공지능 때문에 더 많은 초급 직무가 사라지면서 2026년 졸업생들이 수년 내 가장 높은 실업률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작년 4분기에 미 전체 실업률은 4.2%였던데 반해 신규 대학 졸업생은 무려 5.7%였다.
- 또한 National Academy of Social Insurance의 선임 연구원인 Michele Evermore는 “경력 초기의 젊은 사람들에게 실업은 특히 더 가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4분기 동안의 소득 기록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 또한 젊은 성인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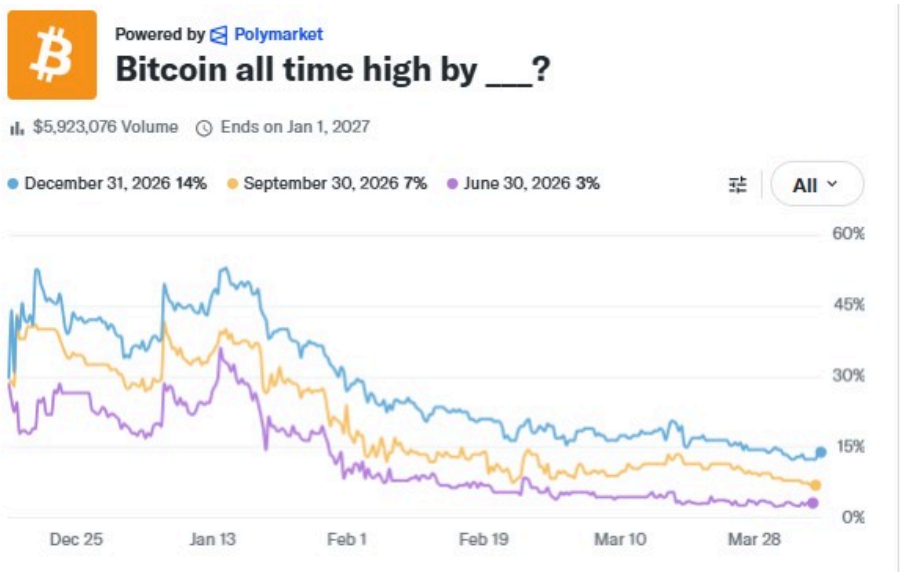
는 저축 같은 안전망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도 더 낮다"고 덧붙였다.

기사

[미국 금융]

YahooFinance: Bitcoin Tops $70,000 on Optimism Over Possible Iran Ceasefire
비트코인 7만 불 돌파…중동 전쟁 휴전 가능성에

- 비트코인이 지난 3월 25일 이래 처음으로 7만 불로 회복되었다. 트럼프가 이란의 민간 인프라에 대해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란이 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 비트코인은 오늘 월요일 오전에 7만 2백 불에 도달했으나 현재 7만달러 보다 약간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 두번째로 큰 디지털 자산인 이더리움도 5%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 24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다행히 2천7천3백달러의 하락 베팅이 청산되었다.



기사

[중동 위기]

Bloomberg: Trump's Iran Deadline Looms With Mediators Pushing for Truce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 미 동맹국들, 휴전 막판 협상 추진

- 미국 동맹국인 파키스탄, 이집트, 터키 등이 미국과 이란의 잠정적 휴전을 이루기 위해 막판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를 다시 열도록 요구한 기한을 내일 화요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는지 시장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 이란 외무부 대변인 Esmail Baghaei은 "이란 정부는 단순한 일시적 휴전이 아닌 전쟁의 확실한 종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보장 없는 단기적 정전 협정에 동의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하지 않을 일'"라고 말했다.

기사

[오일]

CNBC: Oil prices slide as U.S.-Iran war ceasefire under discussion
휴전 논의 중인 상황에 오일가 하락

- 이란 전쟁 중재자들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오일 가격이 하락했다.
- 오늘 월요일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5월 계분이 1% 하락한 1백12달러 39센트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의 경우 배럴당 1백9달러 69센트로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 현재 미국과 이란과 4개 중재국가는 45일간의 휴전이 이뤄져 영구적인 전쟁 종식을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무역 전쟁]

YahooFinance: Trump administration signals it will offer broad tariff refunds. That could mean millions for companies
트럼프 행정부, 광범위하게 관세 환급해 줄 듯

- 그동안의 환급 대상 범위 관련해 핵심 쟁점은 세액 확정 절차인 '청산'(관세청의 관세 최종 정산 확정) 여부였다. 정부는 미청산, 이의신청 기간 내 항목, 이미 최종 확정된 항목까지 모두 환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실상 관련 관세 전체를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 처리 절차와 관련해 현재 4단계 환급 프로세스를 구축 중이며, 시스템이 가동되면 신청 후 처리까지 약 45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이번 조치는 2025년부터 시작된 기업들의 소송과 올해 2월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당하게 징수된 관세가 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s Rise for Fifth Week, Sending 30-Year to 6.46%
미 모기지 5주째 상승…30년은 6.46%

- 미 모기지 금리가 5주 연속 상승하며 주택 시장의 최대 성수기인 봄철 매매 시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30년 만기 고정 금리는 지난주 6.38%에서 6.46%로 올랐으며, 이는 지난 9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 매매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인한 고용 불안도 확산하는 추세다. 여기에 집값 또한 여전히 많은 미국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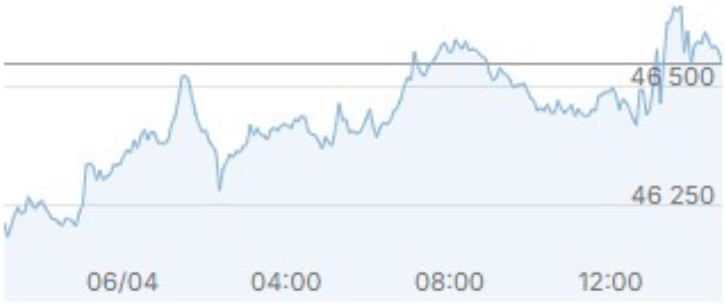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Amazon Imposes 3.5% Fuel Surcharge for Many Online Merchants
아마존, 온라인 물품에3.5% 연료추가 요금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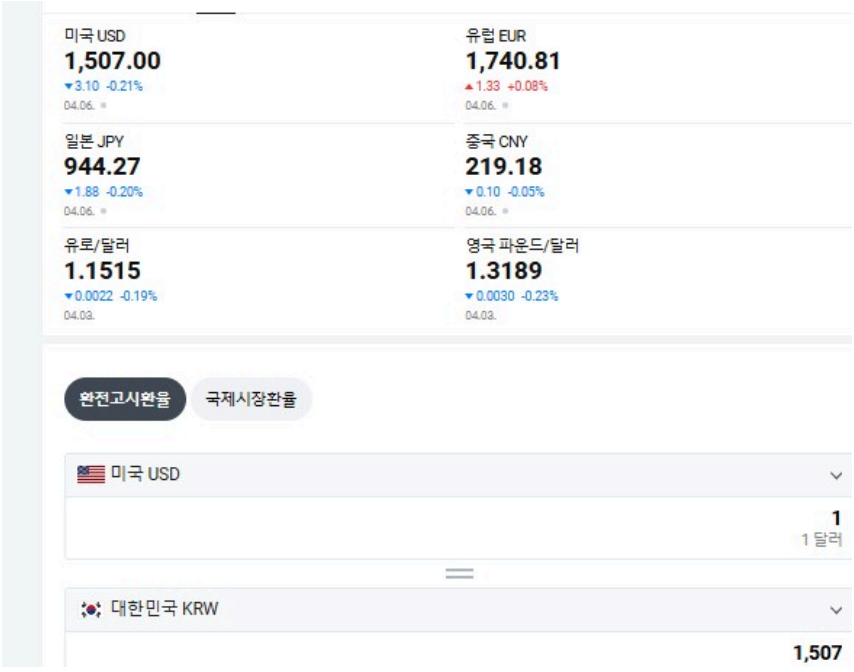
- 아마존이 이번 달 말부터 자사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에게 3.5%의 '연료 및 물류 추가 요금(fuel and logistics surcharge)'을 부과한다. 이란과의 전쟁으로 기름값이 오르자, 배송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는 추세에 합류한 것이다.
- 구체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아마존의 배송 대행 서비스인 FBA(Fulfillment by Amazon)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에게 4월 17일부터 적용된다.
- 아마존 사이트가 아닌 자체 사이트나 다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면서 배송만 아마존에 맡기는 경우(MCF 등)는 5월 2일부터 추가 요금이 붙는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와 주요 환율]



US 30	46,563.80	+59.1	+0.13%
US 500	6,591.50	+8.8	+0.13%
Dow Jones	46,546.65	+41.98	+0.09%
S&P 500	6,589.73	+7.04	+0.11%
Nasdaq	21,927.82	+48.64	+0.22%
S&P 500 VIX	24.42	+0.55	+2.30%
Dollar Index	99.83	-0.025	-0.03%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